『종교학연구』 제38호
한국종교학연구회, 2020, pp. 23-54.

삼척 상두산 산멕이의 실재
: 종교혼합(Religious Syncretism)의 시각에서*

김 제 우**
김 인 우***

目 次

Ⅰ. 들어가며
Ⅱ. 분석적 차원에서의 종교혼합
Ⅲ. 상두산 산멕이의 이해
  1. 선행연구의 비판적 검토
  2. 삼척 상두산 산멕이의 현상적 이해
  3. 산멕이의 실재
Ⅳ. 종교혼합의 시각으로 본 상두산 산멕이
  1. 유형론의 측면
  2. 역사성의 측면
  3. 수용자의 측면
Ⅴ. 나가며

Ⅰ. 들어가며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의 주민들은 꽃이 피는 봄철이면 문중별로 삼삼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학생자율연구 지원사업의 결과물을 수정하여 투고한 글입니다. 지도해주신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최종성 교수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학부생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학부생

오오 모여 산으로 올라간다. 주민들은 떡과 음식을 준비해 새벽부터 바쁘게 발걸음을 옮긴다. 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드는 상두산의 아침은 서늘한 바람 때문인지 긴장감마저 감돈다. 산멕이는 강원도 영동지방에서 주로 관찰할 수 있는 민속의례로 삼짇날 즈음부터 단오 이전까지 집안 단위 혹은 마을 단위로 행해진다. 현재 대부분의 전승이 단절되어 있는 산멕이는 종교를 분석할 때에 주지해야 할 종교혼합(Religious Syncretism)의 형태를 잘 보여준다.[1] 그 중에서도 최근까지 내력을 유지하고 있는 삼척 상두산 산멕이는 민중이 종교문화와 의례의 중심이 되어 종교혼합을 야기하는 모습을, 또 그 과정에서 혼합에 대응하는 종교 엘리트의 입장과 태도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본고에서는 상두산 산멕이에 관해 두 가지 지점에 주목한다. 먼저 상두산 산멕이를 직접 관찰하고 수용자(devotee)와 집전자(devoter)를 인터뷰하여 산멕이의 목적과 실재를 분석한다. 기존의 산멕이 관련 선행연구들은 의례의 현상에 대한 기술을 성실하게 수행했지만, 의례의 목적성과 신격,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수용자의 인식 등을 통합적으로 서술하는 데 있어서는 아쉬운 지점을 남겼다.[2] 본고

---

1) 종교혼합(Syncretism)이란 표현은 플루타르크(Plutarch, 45-125)가 최초로 언급한 바 있으며, 가톨릭과 개신교의 갈등이 고조되었던 17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당시 가톨릭교도와 개신교도 사이의 갈등에서 게오르그 칼릭스투스(Georg Calixtus, 1586-1656)는 이들 사이의 공통점을 강조하며 분쟁을 봉합하려 했다. 그의 입장을 루터주의자들은 '혼합주의'라고 비판했고, 이 이후 혼합주의는 순수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용어로 곧잘 사용되었다. 하지만 Rosalind Shaw 와 Charles Stewart는 '순수성'을 해한다는 의미에서 부정적으로 이해되던 혼합(syncretism)을 가치 중립적인 학문적 용어로 중립화하는 기획을 수행한 바 있다. Rosalind Shaw and Charles Stewart, Syncretism/Anti-Syncretism: The Politics of Religious Synthesis (London: Routledge, 1994).

2) 『신증동국여지승람』, 『관동지』 등에 언급되던 산멕이가 학계에 최초로 보고된 사례는 장주근과 맹인재가 문화재관리국의 요청으로 조사한 보고서이다. 문화재관리국, 『신리화전부락조사보고서』, 1973. 이후 산멕이를 다룬 연구들에는 김경남, 「영동지역 "산멕이"연구」, 『임영문화』 16 (1992), 118-125; 장정룡, 「강원지역 산맥이 신앙 고찰」, 『한국민속학』 25 (1993), 301-321; 김진순, 송화섭, 「강원도 민속의 지역적 정체성」, 『비교민속학』 29 (2005), 195-241; 김태수, 「산멕이에 관한 논쟁적 해석」, 『한국민속학』 43 (2006), 149-203. 등이 있다. 최근 비교적 심도 있게 산멕이의 목적과 신격에 대해 연구한 결과물에는 김도현, 「삼척 상두산 산멕이에서 모시는 신령의 성격과 의미」, 『한국무속학』 41 (2020), 67-122. 가 있다.

에서는 산, 문수, 군웅 등이 신화적 시조의 표상으로 이해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조상을 모시는 화전놀이'라는 산멕이의 성격을 규명하고 산멕이의 목적과 신격을 통합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목표한다. 다음으로는 종교혼합의 시각에서 역동적으로 혼합을 이루며 종교적 생명력을 발산하는 상두산 산멕이의 모습을 서술한다. 민중은 종교를 혼합시키는 주체로서 종교현상을 구성한다. 동시에 혼합된 종교문화는 민중을 규합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다. 이러한 양방향의 흐름은 상두산 산멕이 의례의 현장과 현장의 이면에서 연속적으로 발견된다.

본고는 Ⅱ장에서 '분석적 차원에서의 종교혼합'이라는 제목으로 종교혼합의 분석적 가치를 서술한다. 특히 학문적 관점에서 종교혼합의 시각을 가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종교혼합을 어떠한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Ⅲ장에서는 '상두산 산멕이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기존의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상두산 산멕이의 전개와 실재를 현상적으로 파악한다. 상두산 산멕이를 이해하는 데는 의례의 직접적인 관찰에 더해 수용자와 집전자들의 인터뷰를 중점적으로 참고한다.[3] Ⅳ장에서는 '종교혼합의 시각으로 본 상두산 산멕이'라는 제목으로 상두산 산멕이의 사례를 종교혼합의 관점에서 서술한다. 본고는 상두산 산멕이에서 드러나는 종교혼합의 모습을 혼합의 유형과 역사적 과정 그리고 수용자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고 현상의 의미를 도출한다.

Ⅱ. 분석적 차원에서의 종교혼합

종교는 삶의 중추적인 요소로 경험되는 것이기에 개인의 독특한 고백과 인식

3) 본고에서 인터뷰한 대상들은 다음과 같다. 다여스님(삼척 신기면 안의리 안정사 주지스님), 참가자인 당주 A씨(男, 73세, 삼척시 도계읍 홍전리)와 부인 B씨(女, 61세, 삼척시 도계읍 홍전리), 집전자인 무속인 C씨(女, 61세,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와 D씨(女, 49세,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다여스님을 비롯해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에게 그리고 상호 간의 소통을 도와주신 김도현 박사님에게 감사를 표한다.

이 핵심적이지만, 동시에 인간은 삶의 총체인 '문화' 속에서 스스로의 삶과 종교를 경험하고 해석한다.[4] 그렇기에 삶의 타 영역과 종교를 단절해서 바라보거나 문화와의 상호작용을 인지하지 않은 채 종교를 이해하려 한다면, 종교를 온전히 관찰하지 못할 수 있다. 종교를 문화 속의 맥락에서 상호작용한다고 전제할 때, 우리는 문화가 가진 특징 중 하나인 접변(acculturation)과 혼합(syncretism) 역시 종교현상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5]

그러나 종교혼합을 불가피하고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았을 때 특정 사례를 종교혼합의 틀로 분석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의 동어반복이라는 지적이 존재한다. 그래서 당연하게 존재한다고-존재할 수밖에 없다고-인식되는 혼합은 "역사 현상으로서의 혼합현상(Syncretism as a Historical Phenomenon)"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이는 건조하게 존재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분석적으로 종교문화를 분석하는 데는 그 가치가 낮다고 이해되기도 한다.[6] 하지만 종교혼합을 학문적 영역에서 주요한 관점으로 정초하고 종교현상을 살피는 것은 동어반복을 넘어서는 함의를 가진다. 종교혼합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특정 전통 내부의 신학적, 교학적 관점에서 종교혼합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인식의 편향을 수정할 기회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미 혼합현상이 교학적, 신학적 관점에서 오용되고 있기에 혼합이라는 용어를 객관화, 중립화하고 종교 이해에 있어서 혼합의 의의를 밝히는 것에도 또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7] 또한 종교혼합을 주목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각 종교현상이 존재하는 시공간에 따라서 종교혼합이 다양한 모습으로 관찰된다

---

4) 정진홍, 『종교문화의 이해』, (서울: 청년사, 1995), 11-15.

5) 엘리아데는 혼합현상이 종교와 종교적 인간에게서 일반적으로 발견된다는 사실을 일찍이 밝힌 바 있다. "절충주의(역서는 syncretism을 절충주의로 번역했다.)는 종교생활의 전 과정에서 어떤 시점에서나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미르치아 엘리아데 (Mircea Eliade), 『종교형태론』, 이은봉 옮김 (파주: 한길사, 1996), 577.

6) Robert D. Baird, *Category Formation and the History of Religions* (The Hague: Mouton, 1971), 143-151. 로버트 베어드의 종교혼합에 대한 더욱 정교한 이론적 검토는 다음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방원일, 「혼합현상을 이론화하기 - 한국 개신교 의례의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종교학연구』 20 (2001), 112-113; 방원일, 「혼합현상에 관한 이론적 고찰: 종교문화의 만남을 서술하기 위하여」, 『종교문화비평』 33 (2018), 61.

7) 방원일, 「혼합현상을 이론화하기 - 한국 개신교 의례의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114.

는 점에 있다.[8] 각 종교현상마다 종교혼합은 다른 유형으로, 독특한 역사적 과정으로, 특정한 주체의 힘으로 발생한다.[9] 그렇기에 종교혼합에 주목하는 것은 개별 종교현상이 가진 독특성과 의의를 통합적이고 세밀하게 이해하기 위한 전제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종교혼합의 시각에서 종교를 바라본다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먼저 종교혼합의 관점은 종교의 변화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무엇을 혼합하고 변동시켰는지를 보게 한다. 주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종교적 요소를 도구로 사용하는지 등의 질문들은 혼합현상의 주체가 되는 인간을 추상적인 인간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내리고 종교를 해석학적으로 전유(hermeneutic appropriation)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종교혼합의 시각은 문화 내부에서 발생하는 변화의 동학을 관찰할 수 있게 해준다. 종교혼합을 추동하는 주체들이 사용하는 도구는 이미 존재하고 있던 과거의 요소들이다. 이러한 점은 종교문화에 있어서 혼합현상이 오로지 외부의 새로운 문화가 충돌했을 때만 일어나는 접변뿐 아니라 내부적인 이유, 동인에 의해 민중이 내부에서 일으킬 수도 있는 변화라는 점을 시사한다.[10]

종교혼합은 역사적으로 부정적인 선입견에 사로잡히기도 했지만, 최근 종교현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러한 사례로 종교혼합의 개념을 종교를 변화시키고 유지시키는 하나의 요소로 전제해 다른 요소들과 비교하는 연구를 주목할 수 있다.[11] 그러나 본고에서는 종교혼합의 양상에

8) amalgamation을 syncretism과 동일하게 보는 등 종교혼합을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에는 본고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게라르두스 반 데 레이우는 종교혼합을 논의하며 사례에 따라 다양한 의도성, 주체 등이 존재함을 밝힌 바 있다. “In ancient Egypt (중략) The priesthood of one of the capitals zealously pursued the unification (중략) In Greece, on the other hand, this theogony was effected by the poets.” G. Van der Leeuw, *Religion in Essence and Manifestation*, trans. J. E. Turner (New York: Harper & Row, 1963), 609-610.

9) 최종성, “[Book Reviews] Syncretism of Buddhism and Shamanism in Korea”,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 8, No. 1 (2005), 217-222.

10) Stefania Palmisano and Nicola Pannofino, *Invention of Tradition and Syncretism in Contemporary Religions*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7), 12, 206-213.

집중하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종교의례 안에서 드러나는 유형론의 측면, 역사적 측면, 수용자의 측면이라는 종교혼합의 세 가지 측면을 분석적으로 탐구하려 한다.

유형론의 측면은 종교혼합이 이루어지는 유형 간의 관계와 모습을 기준으로 혼합의 양상을 파악한다. 구체적인 유형론의 구분에는 상향의 혼합(High Syncretism)과 하향의 혼합(Low Syncretism) 또는 점진적 혼합(Gradual Syncretism)과 의식적 혼합(Conscious Syncretism) 등의 유형들이 제시된다.[12] 종교혼합을 유형론에 따라 분석한다면, 혼합의 과정에서 주체들이 어떠한 종교적 형태와 의례에 지향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느 정도의 의도성으로 혼합을 추동했는지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역사적 측면은 분석의 유형이나 틀이라기보다는 현상을 해석하는 하나의 태도라고 설명할 수 있다. 특정 종교의례나 현상은 변화 없이 정태적으로 상존했다고 보기 어렵다. 종교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오며', '어떠한 유형으로', '어떠한 주체에 의해 변화하고 혼합되었는지'의 역사적 시각은 종교혼합을 설명하는 데 필수적이다. 일례로 기존의 산맥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현존하는 산맥이의 의례적 형태를 관찰한 뒤, 그러한 형태를 산맥이의 고정된 모습으로 여기기도 했다. 그러나 산맥이를 비롯한 종교현상들을 관찰할 때는 이를 고정되고 불변하는 현상으로서 이해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시간에 따라, 지역에 따라 어떠한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혼합되었는지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만 혼합의 과정을 이해하고, 혼합을 추동한 주체를 선명하게 포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체의 측면은 종교혼합을 야기하는 동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는다. 종교는 인간의 삶 속에 자리한 문화의 일부이기에 혼합을 추동하는 힘은 문화를 구성하고 변화시키는 인간에게 있을 것이다. 인간이 주체라는 당연한 사실에도 불

11) 종교혼합을 다른 요소와 함께 하나의 요소로 이해한 연구의 한 사례로는 성스러움에 대한 종교전통에서 'Invention'의 측면과 'Syncretism'의 측면을 병렬해서 분석한 Stefania Palmisano와 Nicola Pannofino의 저서를 들 수 있다. "발명(invention)과 혼합(syncretism)은 사회 집단들이 그들의 전통과 관계된 담론을 비판적으로 재-기술하는 실천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Stefania Palmisano et al., *Invention of Tradition and Syncretism in Contemporary Religions*, 12.

12) 최종성, "[Book Reviews] Syncretism of Buddhism and Shamanism in Korea", 218-219.

구하고 종교혼합의 주체에 대한 주목은 분석적인 차원에서 종교혼합의 과정을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게 해준다. 같은 종교전통 안에서도 혼합을 바라보는 시각은 상이하다. 교리를 다루는 엘리트 계층은 반혼합주의(anti-syncretism)를 지지할 수도 있고, 수용자들은 혼합주의를 환영 할 수도 있다.[13] 혹은 같은 계층 안에서도 어떤 종교엘리트는 혼합을 추동할 수도 있고, 어떤 종교엘리트는 거부할 수도 있다. 주체의 측면을 포착한다면 이러한 중층적인 주체들의 선택과 혼합의 과정을 설득력 있게 서술할 수 있다. 또한 주체에 대한 주목은 지금까지 잘 조명되지 않았던 수용자의 해석학적 전유를 조명할 수 있게 한다.[14] 위에서 종교혼합을 주목하는 것이 참가자들의 능동성을 강조할 수 있다고 주장했듯이 주체의 측면을 검토하는 작업은 기존에 엘리트 중심으로, 교리 중심적으로 이해되던 종교현상의 이해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가진다.[15]

종교혼합의 세 측면은 서로 간에 분절적이지 않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한다. 역사적 맥락으로 주체를 조명해야 하기도 하고, 주체의 선택들이 혼합의 유형을 결정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상두산 산멕이 사례를 분석하는 데 있어 세 측면을 자의적이고 분절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본고의 중요한 과제다.

Ⅲ. 상두산 산멕이의 이해

1. 선행연구의 비판적 검토

산멕이는 선학들에 의해 많이 연구된 주제가 아니다. 하지만 몇몇 선행연구들 그리고 조사보고서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대개 가족의 평안과 가축의 번식 그

13) 최종성, “[Book Reviews] Syncretism of Buddhism and Shamanism in Korea”, 217.
14) 최종성, 「조선전기 종교혼합과 혼합주의 – 유교, 불교, 무속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47 (2007), 44.
15) 방원일, 「혼합현상을 이론화하기 - 한국 개신교 의례의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116-117.

리고 수태의 기원과 자손의 번창을 비는 의례로서 산멕이를 이해한다는 점을 공유한다. 본 절에서는 각각의 연구자들이 제시한 산멕이의 목적과 성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앞선 연구들은 산멕이의 목적으로 평안의 기원, 자손의 성공, 조상과의 화전놀이, 호환의 방지 등 여러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김경남은 산멕이의 목적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 하나는 가정의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다른 하나는 가축의 번식을 기원하는 목적, 마지막으로는 구성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소풍의 목적이다.[16] 장정룡은 이에 더해 호환을 방지하는 목적을 강조한다.[17] 김진순과 송화섭은 집안의 태평함, 소의 안녕, 자손들의 성공 그리고 순조로운 수태의 기원 등을 산멕이의 목적으로 파악했다.[18]

여기서 호환을 방지한다는 목적과 아이 갖기를 수월하게 해달라는 기원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강릉의 일부 마을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특성일 수는 있겠으나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장정룡은 호환의 방지를 산멕이의 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강릉단오제 국사여성황신의 설화를 제시한다.[19] 하지만 본고에서 관찰한 삼척 상두산 산멕이의 경우 호환 방지가 산멕이의 주된 성격이라는 것을 수용자들이 전혀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3절에서 자세히 논의되겠지만, 오히려 삼척지역 사람들은 범(표범)을 광의의 조상으로 이해하는 등 해당 표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 수태의 기원과 자손의 번창을 산멕이의 목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는 삼신 의례가 산멕이에서 중심적이고도 전면적으로 연행되지 않고, 아이를 갖기 희망하거나 아이가 잘되길 희망하는 가정의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추가된다는 점에서 이를 부수적인 의례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때문에 이것을 산멕이 일반의 특징으로 제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상두산 산멕이의 핵심적인, 더 나아가서 산멕이 전반에

16) 김경남, 「영동지역 "산멕이"연구」, 119-121.
17) 장정룡, 「강원지역 산맥이 신앙 고찰」, 317-319.
18) 김진순, 송화섭, 「강원도 민속의 지역적 정체성」, 219-222.
19) 장정룡, 「강원지역 산맥이 신앙 고찰」, 317.

걸쳐 가장 중요한 목적/성격은 조상과 함께하는 화전놀이다. 이전 연구자들이 지목한 산멕이의 여러 다양한 목적들은 화전놀이라는 주된 목적에 동반되는 부수적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본고가 파악하는 산멕이의 실재와 목적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3절에서 자세하게 서술한다.

또한 선행연구들이 관찰한 산멕이의 참여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선행연구는 산멕이의 참여자를 개인적인 참여자와 집단적인 참여자로 구분했다.[20] 그러나 상두산 산멕이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은 산멕이를 가문, 씨족, 문중의 공동체적인 의례라고 이해하며, 강릉지역에서 발견되는 가족 단위의 소규모 산멕이를 문중 중심의 산멕이가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안으로 선택되는 축소된 형태라고 이해한다. 또 공동체의 집단적인 참여라는 측면에서 산멕이를 마을 의례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이는 당시 강원도 영동지역 산촌마을 대부분이 집성촌이었고 지연공동체와 혈연공동체가 분리되기 어려운 형태였기에 문중의례가 마을 의례로 보일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상두산 산멕이의 집전자는 이점에 있어서 타성바지들이 산멕이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 다여스님: 산멕이는 문중 단위로, 성씨별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 동네 보면 다른 성씨가 있거든? 그럼 그 사람들 잘 안 끼워줘 그럼 그 사람들 큰 집에 머슴 살거나 이런 데 시집을 왔는데 너무 부럽다는 거야. 떡을 해서 올라가고 산멕이는데 우리는 언제 한 번 가보나 이런 마음이 들드라는거야. 아무나 끼워주지 않아. (인터뷰: 2020.05.05)

이처럼 상두산 산멕이는 혈연공동체형 의례의 성격이 강하나 최근에는 지역적 기반을 중심으로 지연공동체형 의례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산멕이에 참가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어, 의례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삼척 상두산을 중심으로 여러 성씨의 문중들 약 30~40가구 정도가 함께 모여 의례를 진행하고 있다.

---

20) 김태수, 「산멕이에 관한 논쟁적 해석」, 161.

2. 삼척 상두산 산멕이의 현상적 이해

삼척 상두산 산멕이의 진행 과정은 의례 전 준비, 사전의례, 산멕이 본 의례로 나눌 수 있다. 의례 전 준비에는 택일, 제당터 소제와 금줄치기, 제주 빚기와 산에게 고하기 등 의례를 위한 여러 준비과정이 포함된다.[21] 사전의례는 산멕이 당일 새벽부터 진행되는 의례로 당주댁에서 진행되는 의례 과정이다. 산멕이 본 의례는 본격적으로 모든 수용자가 참가하는, 제당터에서의 의례이다.

의례 전 준비과정 중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는 산멕이를 진행하는 날짜를 잡는 일이다. 택일은 산멕이의 의뢰자 혹은 당주댁의 운수를 기준으로 운이 좋은 날을 집전자가 택한다. 날짜는 삼짇날을 전후해서 단오 즈음까지 중 하루를 택한다. 택일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당주나 의뢰자와의 궁합이기 때문에, 반드시 삼짇날과 같은 유명일을 선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산멕이를 진행할 날짜가 정해지면 참가자들은 <그림 1>과 같이 그 이전에 의례가 진행될 제단을 미리 청소하고 금줄을 친다. 부정을 막기 위한 금줄은 제단뿐 아니라 의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당주댁에도 친다. 또한 의례에 사용될 술을 직접 빚는 집들은 빚은 술을 미리 가정에 모신 산에게 올리기도 한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새끼줄은 산의 신체로 주민들은 그 아래 술을 올린다.

<그림 1> 제당터의 청소와 금줄치기

21) 후술하겠지만 이후 계속해서 언급되는 '산'은 표범으로 표상되는 신화적 시조로, 산신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이해되는 산(山)과는 다르다. 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본 장의 3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그림 2> 산에 올린 제주

의례 전 여러 준비를 마친 뒤 산멕이 당일에는 이른 새벽 당주댁에서 사전의례가 진행된다. 산멕이 본 의례를 오전 8시경 시작해야 하기에, 당주댁의 사전의례는 6시 30분 즈음 이른 시각에 진행된다. 사전의례는 <성주님께 고함 ⇒ 산에게 고함 ⇒ 군웅 위함 ⇒ 안방에서 조상께 고함 ⇒ 대주가 제물을 담은 소쿠리를 메고 마당에서 바가지를 밟고 지나감>의 순서로 진행된다. 사전의례의 목적은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산(山)이라는 공간으로 이동되는 산, 군웅, 조상에게 모셔감을 알리는 동시에 가택신인 성주에게도 이들이 화전놀이 다녀옴을 알리는데 있다.

사전의례가 마무리되면 상두산에 모인 모든 참여자들이 8시 경부터 산멕이를 준비하고 시작한다. 산멕이 본 의례는 <부정치기 ⇒ 하늘맞이 ⇒ 먼산맞이 ⇒ 문수맞이 ⇒ 산맞이 ⇒ 조상맞이(조상 길가름) ⇒ 군웅굿 ⇒ 조상 옷 갈아 입히기 ⇒ 삼신맞이 ⇒ 뒷거리 ⇒ 농사놀이 ⇒ 음복과 놀이>의 순서로 진행된다.

부정치기는 산멕이 제단과 참여자들에게 부정이 타지 않도록 처리하는 과정으로, 세 번에 걸쳐 진행된다. 처음의 초부정치기는 산에 들어오는 입구에서 성황을 위하는 간단한 제사상과 함께 주변에 불을 지르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제당터

의 입구에서 진행되는 재부정치기에서는 집전자가 악사의 장구 소리에 맞추어 소나무와 버드나무 가지로 물을 찍어 제물과 참가자들을 때리며 부정을 친다. 본격적으로 제당터에 들어간 사람들은 제단과 제물을 차린 뒤 또 다시 부정을 피하는 의미의 부정굿을 한다.

이후에는 본격적인 의례가 진행된다. 하늘맞이는 천군맞이라고도 부르며 하늘의 조상. 환웅. 환인을 향해 참석자들이 '화전놀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순서다. 이어지는 먼산맞이는 멀리 있는 산인 태백산을 향해 산을 멕이러 왔음을 알리는 순서다. 문수맞이는 민간에서 태백산에 좌정했다고 여겨지는 문수보살을 맞는 자리다. 문수맞이는 모든 참가자가 참여하지 않고, 과거 상두산에서 산멕이를 하기 이전 태백산을 다니며 산멕이를 하던 가정의 경우에만 참여하는 것으로, 수용자에 의해 혼합된 의례의 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 다여스님: 그래서 여기 태백산 다니다 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문수맞이를 하고, 안 다닌 사람들은 문수맞이 안 해. (중략) 옛날에 여기는 태백산에 다 다녔어. 부잣집들. 근방 사람들은 태백산을 영산이라 여기고 다 태백산 갔어. (중략) 태백산에서 맞이하면 산신 뫼 짓기 전에 문수밥을 먼저 떠 이게 전통으로 태백산에 생겼어. (인터뷰: 2020.05.05)

이어지는 산맞이는 의례가 진행되는 산에 좌정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산신(山神)을 향해 산멕이 왔음을 알리는 과정이다. 하늘맞이부터 산맞이까지의 과정은 가정에서 모셔온 군웅, 산, 조상과는 다르게 가정 밖에 좌정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하늘, 천군(天君), 산신(山神), 문수에게 산멕이 왔음을 알리고, 이들을 화전놀이의 부수적인 손님으로 초대하는 오신(娛神)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어지는 순서는 가정에서 제당터로 모셔온 신들과 화전놀이를 하는 과정이다. 산, 조상, 군웅의 순서로 참가자들은 모셔온 신들과 여흥을 즐기기도 하고, 가정의 안녕을 빌기도 한다. 상두산 산멕이의 참가자들은 가정에서 모신 신을 맞는 과정의 가장 주요한 목적을 '화전놀이'라고 이해한다.

B: 처음에는 기도고요. 가정, 농사 잘 되게 하고. 조상님들 모시고 화전놀이 가니까. 다 기도에요. / 면담자: 기도의 목적은요? / B: 놀려드리는 거죠. 화전놀이니까. (인터뷰: 2020.05.06)

이 과정에 함께 화전놀이를 온 조상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준다는 의미의 길가름과 조상 옷 갈아 입히기가 포함되어 있다. 길가름은 아래의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준비해온 삼베를 가르며 조상에게 새 옷을 해드린다는 의미를 가진다. 조상 옷 갈아 입히기는 제단 뒤편의 나무에 길가름 때 자른 베를 던져 가지에 던지는 의례로, <그림 4>에서 볼 수 있는 베가 나뭇가지에 잘 감긴 모습은 조상이 옷을 잘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 베를 잘라 옷 드리기

<그림 4> 조상 옷 갈아 입히기

폐백드리기 뒤에는 삼신맞이가 이루어진다. 삼신맞이는 삼신을 모시는 여타 민속종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에 어린아이가 있거나, 출산을 기원하는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삼척 상두산 산멕이의 경우에는 2019년에는 3가구, 2020년에는 2가구가 참여했다. 상두산 산멕이에서 삼신의 신체(神體)로 여겨지는 것은 제당터 옆의 작은 바위다. 이처럼 바위의 형태를 가진 삼신에 비는 행위는 전국적으로 발견되는 매매법 혹은 아이 팔기와 같은 의례적 관념과 상통한다.[22] 이어지는 절차는 농사놀이와 음복, 놀이다. <그림 5>에서 볼 수 있는 농사놀이는 농사의 과정과 민중의 삶을 표현하는 복장으로 10여 명 내외의 참가자들이 의상을 차려입고 함께 참가한다. 농사놀이는 뒤이어 자연스럽게 연희적 성격을 강하게 띠는 음복으로 이어진다.

<그림 5> 농사놀이

삼척 상두산 산멕이는 위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되

22) 아이를 영원하거나 영험한 것으로 여겨지는 대상에게 의탁해 수명의 연장을 바라는 의례들은 바위, 석불, 무당, 나무 등의 다양한 존재를 대상으로 여러 민속지와 보고에서 전국적으로 관찰된다. 국립민속박물관, 『일생의례사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14); 정승모, 「경기도 지역 가정신앙의 특징」, 『한국의 가정신앙: 경기도 편』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김명자, 「경북지역 가정신앙의 특징」, 『한국의 가정신앙: 경상북도 편』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서해숙, 「전북지역 가정신앙의 특징」, 『한국의 가정신앙: 전라북도 편』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는 문중과 가정별 제물은 수용자들이 각기 준비한다. 의례를 집전하는 무당에게 줄 수고비는 참가자들이 콩 5되(약 60,000원)씩 걷어서 단체로 비용을 마련한다.[23)]

3. 산멕이의 실재

산멕이의 실재를 규명함에 있어 그것의 성격(화전놀이)과 모셔지는 신격(조상님네)으로 나누어 파악해 볼 수 있다. 먼저 성격의 파악에 있어서 참여자와의 인터뷰 한 대목을 인용하자면 상두산 산멕이는 한 마디로 “기도와 놀이. 노는 것이 곧 기도”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만큼 상두산 산멕이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산멕이의 목적성은 ‘조상님과 함께 가는 화전놀이’라는 의미가 큰 것이다.

> 면담자: 산멕이에서 기도드리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 B: 굉장히 많은데 제일 중요한 분은 조상님하고 군웅 그리고 산 / A: 일단은 기도잖아요. 그리고 또 화전놀이 조상님들 모시고 가서 같이 놀다가 기도와 놀이죠. 노는 것이 기도고. (인터뷰 : 2020.05.06)
>
> 면담자: 두 분께서는 산멕이의 목적, 혹은 의미를 어떻게 보시는지? / C: 산멕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꽃 피고 잎 피고 하니까 정성을 깨끗한 마음으로. 정성을 드리고 가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화전놀이 하는. 화전놀이라. / D: 꽃 피고 잎 필 때 조상님들께 화전놀이 가자고 알리는 의미로 하죠. (인터뷰 : 2020.05.06)

산멕이의 참가자들은 조상님들과 함께 화전놀이를 가는 것을 곧 기도로 여기며, 놀이와 기도를 동치관계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연희성에서 강한 종교성을 찾아내는 수용자의 민중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조상님과 함께하는 화전놀이에서 기도드리는 것은 주로 의례에 참가하는 이들의 평안에 맞춰져 있다. 이에 더하여 순산 혹은 출산을 원하는 집에서는 삼신에게 기도를 올리기도 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는 가정의 경우 그해 가축(특히 소)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군웅에게 빌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주된 목적은 화전놀이, 즉 조상과

---

23) 김도현, 「삼척 상두산 산멕이에서 모시는 신령의 성격과 의미」, 81.

후손을 아우르는 문중 전체의 단합대회와 같은 것이다.

> 다여스님: 우리 모두 하늘의 자손이니까 결국 제천의식이고, 조상님과 함께하는 화전놀이고 놀러 가는 거고 단합대회라. 놀고 이러니까 기도가 잘 되는 거지. (인터뷰 : 2020.05.06)

다음으로 신격의 파악에 있어서 산멕이에서는 '산(山)에 좌정하고 있는 신'과 '가정에서 모셔가는 신'이라는 두 가지 범주의 신격이 포착된다. 천군, 산신 그리고 문수와 같이 특정한 장소에 좌정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신들은 산멕이의 주요 신격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늘에 고하는 것은 하늘에 정주해 있다고 여겨지는 천신에게 여기에 화전놀이 하러 온 자손들을 살펴봐 주라는 의미이고, 문수맞이를 하는 것은 태백산에 좌정했다고 여겨지는 문수보살에게 다른 장소에서 의례를 진행함을 알리는 의미이다. 산신에게 고하는 것 역시 산멕이를 진행하는 제당터가 위치한 산에 좌정한 산신에게 가정에 모셔진 신들과 함께 이곳에 와서 즐겁게 놀이를 진행할 것을 알리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들의 신격은 산멕이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특정 장소에 좌정한 신이 아닌 '가정에서 모셔가는 신'이 산멕이의 주인공들이다. 그들은 '조상님'이라는 개념어로 한 데 묶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상님은 안방에 모셔진 3~4대조의 가까운 조상님과 신화 상의 시조인 '산' 그리고 상두산 산멕이에 참여하는 이들이 머나먼 조상과 같은 존재로 믿는 군웅이 포함된다. 여기서 산은 이전 연구자들에게 혼돈을 준 개념이기도 하다. 혹자는 이를 산(山)으로 해석하여 산신(山神) 혹은 산(山) 그 자체를 먹이는 것 혹은 막는 것이라는 의미로 산멕이를 해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파악한 산멕이의 실재와는 동떨어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상두산 산멕이 참여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파악되는 산은 신화 상의 시조신으로 표범의 이미지로 표상된다.

> 면담자: 산은 어떤 존재이신지? / B: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범(호랑이가 아닌 표범)을 믿던 조상들인데 그분들은 다 산을 모시는 거죠. / 면담자: 고기 같은 것

을 사 오면 산에게 떼 놓고 한다는데요? / B: 지금도 육고기나 생선이나 들어오면 거기다 갖다 바쳐요. 올렸다가 내려서 먹을 때는 옛날에는 살기 힘들 때는 요 만큼씩 뜯어서 기별만 하신거야. (중략) 그걸 모아 놨다가 산멕이 올 때 가져와 태우고하지요. 옛날에는 쬐끔씩인데 모아둬도 쥐가 와서 물고 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게 모여서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이 자리에서 와서 태우고. (인터뷰 : 2020.05.06)

‘산을 멕이러’ 가는 행위는 그 자체로 가정에 모셔진 산의 신체 그리고 조상신들의 신체를 모시고 ‘멕이(먹고 놀러)러’ 간다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상두산 산멕이에 참여하는 이들은 군웅을 민족의 머나먼 시조로 여긴다. 군웅은 일반적인 민속종교에서 가축의 신인 동시에 군신(軍神)의 성격으로 이해된다. 상두산 산멕이 참여자들의 경우 이러한 군웅의 이미지에 더해 신화적인 조상의 관념을 포함하고 있다.

다여스님: 여기는 군웅 사설이 있어, 그럼 군웅신이 어떤 신이냐면 옛날에 설산이라는 산이 있었데, 거기 마고할미가 한날 한꺼번에 아들 다섯을 낳은 거라. 한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이고 (중략)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살다 보니까 설산이라는 곳이 눈 오고 서러운 날이 많아서 곡식도 잘 안자라고 풀도 잘 안자라고 짐승 키우기도 어렵고 (중략) 해서 소랑 문중들을 끌고 이리로 살러 왔다는 거야. (중략) 북쪽에서 할아버지가 이룬 땅을 뺏으려고 와서 전쟁을 하는 거야 이제, 우리 자손들 이끌고, 그래가 싸워서 이긴 거지. 그리고 돌아와서 좌정을 한 거야. 그 군웅 할아버지는 북방 분이라 소와 말을 키우는 분이잖아. 그래서 소의 병이라든가, 새끼를 잘 낳고 이런 걸 잘 아는 분이라 소의 삼신이 된 그라. (중략) 그래서 우리가 군웅신을 그날 되게 높게 받들지. (인터뷰: 2020.05.05)

산멕이를 진행하는 데 천군, 산신, 문수의 역할은 구경꾼 신 혹은 제3자로의 신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그 신체를 가정에서 제당터로 모셔가는 신인 산, 군웅, 3~4대조의 조상들을 주체로서의 신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두 범주의 신격은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산멕이를 준비하며 ‘조상님과 함께하는 화전놀이’라는 점을 주지하는 의례 참여자들의 인식과 인터뷰에서도 또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표범신으로의 산과 광의의 조상으로 군웅을 이해하는 상두산

산멕이 참여자들의 사고는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민속종교의 산, 군웅 이해와 다소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광의의 조상신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는 심화된 후속 연구를 필요로 한다.24)

Ⅳ. 종교혼합의 시각으로 본 상두산 산멕이

1. 유형론의 측면

종교혼합의 유형론은 혼합이 일어난 형태가 어떠한 유형을 가졌는지의 측면에서 혼합을 분석한다. 기존에 종교혼합의 유형으로는 상향의 혼합과 하향의 혼합, 점진적 혼합과 의식적 혼합 등이 제시되었다. 전자의 유형은 세계종교와 토착종교의 만남이라는 맥락에서 혼합의 결과로 어떠한 종교가 더 큰 중심성을 가지는지에 따라 유형을 구분한다. 상향의 혼합은 토착종교가 중심성을 유지하며 유입된 세계종교의 표상 등을 수용하는 경우이고, 하향의 혼합은 외부의 세계종교가 현지의 종교적 특성을 흡수하며 중심성을 가지는 토착화 과정을 의미한다.25) 후자의 유형은 혼합의 속도와 주체를 기준으로 혼합을 구분한다. 점진적 혼합은 오랜 시간 동안 기존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혼합하는 것인 반면에, 의식적 혼합은 의도적으로 복수의 종교를 혼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26)

본고는 아래의 <표 1>에서 전자의 유형을 유형 Ⅰ로, 후자의 유형을 유형 Ⅱ로 구분했다. 나아가 혼합의 유형을 논하는 새로운 유형을 조작적으로 설정해 유

24) 광의의 조상신으로 이해되는 산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은 아직 없지만, 유사한 이해가 발견되는 사례들은 김도현이 정리하고 논의한 바 있다. 김도현,「삼척 상두산 산멕이에서 모시는 신령의 성격과 의미」, 105-106.

25) James H. Grayson, “The accommodation of Korean folk religion to the religious forms of Buddhism: an example of reverse syncretism,” *Asian Folklore Studies* Vol. 51 No. 2 (1992), 202-204.

26) Hyun-key Kim Hogarth, *Syncretism of Buddhism and Shamanism in Korea* (Seoul: Jimoondang Publishing Company, 2002), 2. (최종성,「조선전기 종교혼합과 혼합주의 - 유교, 불교, 무속을 중심으로」, 41. 에서 재인용)

형 Ⅲ으로 구분했다. 본 절에서는 앞선 두 가지의 유형으로 상두산 산멕이를 분석하는 동시에, 종교혼합의 새로운 유형으로 제시된 유형 Ⅲ의 기준에서도 분석한다. 한 가지 주지할 점은 혼합의 유형론은 이분법적이거나 상호 간에 배타적이지 않고, 하나의 혼합현상에 복수의 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유형론은 논의의 결론을 짓고 정답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혼합을 이해하고 의의를 분석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27)

<table>
<tr><th>구분</th><th colspan="3">종교혼합의 유형</th><th>비고</th></tr>
<tr><td rowspan="2">유형 Ⅰ</td><td colspan="2">상향의 혼합
(High Syncretism)</td><td colspan="2">하향의 혼합
(Low Syncretism)</td><td rowspan="2">Grayson,
1992</td></tr>
<tr><td colspan="2">O</td><td colspan="2">X</td></tr>
<tr><td rowspan="2">유형 Ⅱ</td><td colspan="2">점진적 혼합
(Gradual Syncretism)</td><td colspan="2">의식적 혼합
(Conscious Syncretism)</td><td rowspan="2">Hogarth,
2002</td></tr>
<tr><td colspan="2">O</td><td colspan="2">O</td></tr>
<tr><td rowspan="2">유형 Ⅲ</td><td>긍정-인지적 혼합
(Positive-Cognitive Syncretism)</td><td colspan="2">부정-인지적 혼합
(Negative-Cognitive Syncretism)</td><td>비-인지적 혼합
(Non-Cognitive Syncretism)</td><td rowspan="2"></td></tr>
<tr><td>O</td><td colspan="2">X</td><td>X</td></tr>
</table>

<표1> 종교혼합의 유형

유형 Ⅰ과 같이 상향의 혼합과 하향의 혼합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삼척 상두산 산멕이의 경우에는 상향의 혼합이 두드러진다. 상두산 산멕이의 신격은 민속종교의 산, 군웅 등과 조상신, 천신이 문수와 같은 불교적 표상과 동시에 모셔지지만, 중심적으로 모셔지는 신격은 산, 군웅 등의 신들이다. 또한 산멕이의 참가자들은 가정에 있는 신주를 가지고 오거나, 현장에서 위패를 만들어 의례를 진행한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제도종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기물인 신주, 위패

27) 최종성, 「조선전기 종교혼합과 혼합주의 - 유교, 불교, 무속을 중심으로」, 42.

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유교적 혹은 불교적 정체성과는 거리를 둔다. 의례의 주체에 있어서도 불교 사찰인 안정사는 산멕이의 유지와 진행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안정사가 산멕이를 흡수했다기보다는 기존에 존속되던 산멕이에 다여스님을 비롯한 안정사의 행위자들과 공간성이 더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종교혼합의 유형을 점진적 혼합과 의식적 혼합으로 나누는 유형 Ⅱ의 기준에서 본다면, 삼척 상두산 산멕이는 점진적 혼합, 의식적 혼합 양측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문수맞이의 경우에는 점진적 혼합과 의식적 혼합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산멕이의 대표적인 요소다. 태백산과 관계된 문수의 표상은 강원도, 경상북도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점진적으로 민중들 사이에서 발전되어 왔다. 문수신앙은 종파의 구분을 뛰어넘어 대중구제의 열망을 가졌던 민중들에 의해 오랜 시간 점진적으로 신앙의 요소로 침투했다.[28] 반면, 의례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문수맞이는 의식적 혼합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문수맞이는 원래 삼척 근방의 산멕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의례였다. 그러나 과거 주민 중 경제적 여유가 있어 태백산으로 산멕이를 가던 문중이 현재는 태백산을 가지 않고 상두산에서 산멕이를 하는 경우에 문수를 위하는 의례를 유지하기 위해 문수맞이를 시작했다. 이처럼 문수맞이는 문수에 대한 신앙이 의례 수용자들의 요구에 의해 어느 한순간에 의도적으로 혼합된 의식적 혼합의 유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다여스님: 산신 대접하는 데 있어서 원래 이 집들이 원래 태백산 다녔으면 그 산의 산신한테도 뭔가 대접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산에 산신 대접할라니까, 누구냐면 문수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문수에게 인사 올리고 그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 만약 태백산 다니던 집 하나도 없으면 문수맞이 안 하지. (인터뷰: 2020.05.05)

추가로 본고에서 새롭게 제시하고자 하는 혼합의 유형인 유형 Ⅲ은 긍정-인지적 혼합(Positive-Cognitive Syncretism)과 부정-인지적 혼합(Negative-Cognitive

28) 김창현, 「고려말 불교의 경향과 문수신앙의 대두」, 『한국사상사학』 23 (2004), 282, 317-318.

Syncretism) 그리고 비-인지적 혼합(Non-Cognitive Syncretism)이다. 본 유형론은 혼합된 종교현상을 내부의 구성원들이 인지하고 있는지 혹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지, 또 인지한다면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는지 혹은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혼합의 유형을 나눈 것이다. 이 유형은 혼합에 대한 주체의 인지 여부와 가치판단을 통해 종교혼합이 어떠한 과정으로 발생해 왔고, 혼합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용이하도록 도와준다. 예를 들어 부정-인지적 혼합의 예시로는 조선 전기의 음사론(淫祀論)과 개신교의 반-다원주의 흐름을 들 수 있다.[29] 비-인지적 혼합의 사례로 들 수 있는 한국 민속종교의 경우에는 진덕왕과 선덕여왕 이후로부터의 오랜 혼합을 통해, 불교적인 내세관, 인물 등을 불교라는 제도종교에 대한 큰 의식 없이 자연스러운 민속종교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30] 그렇기에 불교적 상징, 관념과 혼합한 한국의 민속종교는 비-인지적 혼합의 사례로 들 수 있다. 상두산 산멕이의 경우에는 긍정-인지적 유형으로 의례의 집전자와 수용자 양측 모두 산멕이의 혼합적 특성과 혼합을 야기하는 의도성 그리고 혼합이 낳는 종교적 생명력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다여스님: 여기는 스님들이 절이 다 망했어. 스님들이 산을 안가니까, 교회도 다 망했어. 안가거든. 뭐냐 하면 사람들은 다 산에만 다녀. 여기 사람들은. 그리고

---

29) 종교혼합에 대한 개신교계의 부정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는 근래의 사례는 1975년 세계교회협의회(WCC) 나이로비 총회에서의 논쟁이다. WCC 내에서 개신교계 교단의 통합과 일치를 넘어서 타 종교와의 대화를 강하게 주장하던 학자들은 먼저 기독교적 가치로 타 문화를 변화시키고 그들을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과 갈등했다. 이러한 논쟁은 이후에도 쉽게 잦아들지 않아서 인도 출신 신학자 스탠리 사마르타(Stanley J. Samartha, 1920-2001)는 1991년의 WCC 캔버라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담은 기록에서 '다른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혼합주의의 허가'로 비춰질 수 있다는 논쟁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뒤이어 대표적인 종교혼합의 사례로 이야기되는 신학자 정현경의 초혼제가 양자 간의 차이를 더욱 격화시켰다고 말한다. 더욱 구체적인 논의는 Mariasusai Dhavamony, *Ecumenical Theology of World Religions* (Rome: Editirice Pontificia Università Gregoriana, 2003); Jenny Daggers, *Postcolonial Theology of Religions*. (London: Routledge, 2013)를 참고하라.

30) 장정태, 「한국불교와 민간신앙의 혼합현상」, 『한국사상과 문화』 96 (2019), 111-112.

> 여기 대순진리회가 여기 크게 생겼거든 근데 아무도 안 가. “우린 산에 가야 하기 때문에 대순진리회 안 가요!” 다 이래. 그런데 우리 절 불교가 유일하게 성공한 거야. 우린 그걸 다 인정을 했거든, 창건주 스님이 본토박이다 보니까 민중이 뭘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산멕이도 다 허락이 되고 뭐 인정이 되는 거지. (인터뷰: 2020.05.05)

2. 역사성의 측면

종교혼합을 논하는 데 있어서 역사성의 기준으로 통시적인 과정과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혼합의 유형이나 주체를 분석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의례와 공동체를 비롯한 종교의 여러 측면은 정태적으로 상존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며 변화한다. 더욱이 종교혼합이 두드러지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어떠한 과정으로 혼합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할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본 절에서는 특히 유형론 중 의식적 혼합과 긍정-인지적 혼합의 양상이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거쳐 왔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그 이유는 산멕이 일반에 교차하는 혼합의 양상인 문수의 존재, 광의의 조상으로 이해되는 산의 내력, 신주 혹은 위패의 사용 등은 자료와 구전의 미비로 혼합의 역사성을 논하기 어려운 점이 많지만, 상두산 산멕이에서 발견되는 의식적, 인지적 혼합의 측면은 안정사와 맺어온 특수한 관계를 중심으로 20세기 이후의 역사성을 검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는 역사적인 변천을 맥락화하는 여러 지점 중 공간성의 변화에 주목해서 의식적 혼합과 긍정-인지적 혼합의 양상을 검토하려 한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의 동태적인 탐구는 그 자체로도 혼합의 한 측면을 보여줄 뿐 아니라, 혼합을 추동한 주체에 대해 선명하게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삼척 상두산 산멕이의 역사적 변화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980년대 이전, 두 번째 시기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 세 번째 시기는 2010년대 이후로 나눌 수 있다. 가장 먼저 1980년대 이전의 시기에는 산멕이가 상두산이라는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산에 산재해 있었던 시기다. 다음으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의 시기는 산멕이의 공간이 상두산으로 집중

되며 의식적인 혼합의 양상을 찾아볼 수 있는 시기다. 마지막으로 2010년대 이후는 안정사의 뒤쪽으로 산멕이의 공간이 이동하며 긍정-인지적인 혼합의 양상을 발견할 수 있는 시기다.

첫 번째 시기에는 각 문중별로 산멕이를 가는 산이 정해져 있었다. 삼척 지역은 과거로부터 산멕이를 해왔기 때문에, 문중별로 산멕이를 가는 산이 있었고 의례에 필요한 집전자는 문중에서 일당을 주고 고용하는 방식이었다. 이 시기의 산멕이들은 과거로부터 이어진 보다 원형적인 형태의 의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의 시기에는 인구의 유출이라는 사회적 현상과 함께 산멕이를 하는 문중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었다. 개별적으로 산멕이를 진행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은 상두산에 모여서 함께 산멕이를 진행했고, 이 시기 이후부터 상두산이 산멕이 의례의 중심성을 띠는 자리가 되었다. 이후 2010년대를 지나며 산멕이는 POSCO의 도로 건설로 인해 기존의 제당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기존에 진행하던 상두산 제당터를 벗어나 안정사의 뒤쪽으로 의례의 공간을 이동했다.

이러한 산멕이의 역사적인 변화 속에서 종교혼합의 한 측면을 검토해볼 수 있다. 산멕이의 공간적 이동은 삼척 신기면 안의리에 위치한 안정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졌다. 1980년대 이전의 첫 번째 시기보다도 옛날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에는 산멕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무속인들이 개별 문중의 의뢰를 받고 산멕이를 진행했다. 그러나 점점 무속인의 숫자가 줄어들며 산멕이를 진행할 집전자를 찾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정사를 창건한 대법스님은 이 지역 출신으로서 산멕이를 잘 알고 있었기에 포교의 목적으로 1980년대 이전 매해 15~17곳 정도의 산을 다니며 산멕이를 집전했다.

> 다여스님: 근데 여기 산멕이하던 무속인 다 돌아가시고 없어. (중략) 그런데 여기 산 멕이는게 죽 내려오다가 창건주 스님이 땅설법도 잘하시는데 여기 고향이야 그래서 산멕이를 잘했어. 그래서 여기 한 15-17 마을을 맡아 놓고 산을 다 메기셨거든 (중략) 산메기 안 하면 포교가 안 되는 거야 원하는 데로 일단 다 해주는 거야 두 번 세 번 가면 부처님 말씀을 해줄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인터뷰:

2020.05.05)

이러한 포교의 전략은 적중해서 안정사는 지역에서의 입지를 점점 다지게 되었다. 사실 삼척지역 주민들은 이 지역을 제도종교 혹은 외래종교의 불모지로 인식한다. 산멕이, 문수신앙 등이 오랜 과거부터 자리를 잡았기에 새로운 제도종교에 대한 호응도가 높지 않았던 것이다. 안정사의 포교라는 소기의 목적에 도달한 대법스님은 체력적, 심리적 부담 등의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산멕이 집전을 중단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멕이의 수용자들은 대법스님 대신 산멕이를 진행하는 무속인들의 의례에 불만을 품게 되었고,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적 현상과 함께 결국 개별 문중별 산멕이의 형태는 상두산에 모여 대법스님이 의례를 집전하는 지연공동체 기반 의례로 형태가 변화하게 된다.

> 다여스님: 그거 민중이 원하니까. 민중이 원하는 건 다 했어. 그 사람들이 다 포교가 되더라는 거지. 처음에는 민중이 원하는 대로 다 해야 해 그래야 접촉할 기회가 생기지. 그래가지고 인제 산을 한 15~17개 메기다가 절이 자리를 잡으니 "나 일 안 한다." 그리 된 거야. (인터뷰: 2020.05.05)

산멕이는 수용자들의 요청과 대법스님이라는 집전자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상두산이라는 의례적 중심지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7년 이후에는 POSCO의 도로공사로 인해 상두산 산멕이의 제당터는 안정사 뒤편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이동의 과정에서는 상두산 산멕이가 보여주는 긍정-인지적 혼합의 측면이 드러난다. POSCO의 도로공사와 제당터를 둘러싼 분쟁은 산멕이의 수용자들과 안정사에 큰 위기였다. 산멕이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법적 분쟁과 물리적 충돌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는 의례의 존속을 흔들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러나 산멕이를 구성해온 수용자들과 집전자는 위기 속에서 산멕이의 긍정-인지적 혼합의 측면을 내부적으로 강화했다. 삼척 안정사와 산멕이 보존회를 중심으로 구성원들은 산멕이의 역사를 정리하고, 무속인들에게 산멕이 의례를 학습시키며 의미화와 보존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처럼 상두산 산

멕이는 역사적으로 안의리 안정사와 크고 작은 상호작용을 통해 종교혼합의 과정을 거쳤고, 혼합에 대한 긍정적 의식화를 통해 의례의 생명력을 지켜나가고 있다.

3. 수용자의 측면

수용자의 측면에서 상두산 산멕이의 종교혼합적 측면을 기술하는 것은 종교혼합을 야기하는 동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검토하는 작업이다. 먼저 종교혼합의 과정에 대한 분석적 이해해 있어서, 위의 두 절에서 논의한 종교혼합의 유형론과 역사성의 측면은 수용자 민중이 강하게 추동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산멕이는 민중의 요구에 의해 추가되고 변형됐다. 유형론의 측면에서 검토한 상향의 혼합과 의식적 혼합은 여러 가지 종교적 표상을 흡수해 강력한 종교적 에너지를 형성하고자 한 민중의 의도적인 혼합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역사적 맥락에 있어서도, 산멕이에 참가하는 수용자들은 단순한 종교 소비자가 아닌 적극적인 참가자로서 집전자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제안하고, 변화에 스스로 대응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러한 민중과 종교혼합의 관계는 수용자 주체인 민중과 종교엘리트인 무속인 그리고 안정사 스님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산멕이에서는 의례를 잘 수행하지 못하는 집전자에게 수용자가 타박한다든가, 함께 의례를 만들어가는 상황이 일반적이다. 이는 의례 자체의 주도권이 민중에게 있으며 역사적 과정에서 주체적인 민중을 중심으로 변화와 지속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 B: (의례를 잘 진행하지 못한다고 집전자를 타박하는) 그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예전에 하던 거 하고 옛날부터 지켜오던 걸 지킨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거(집전자의 미숙한 진행) 보고 뭐라고 그러잖아요. 산멕이를 잘 모르는 무속인들은 그걸 모르니까. / C: 산멕이는 내려오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주관하시는 어른들의 눈에 거슬리면 안 되어요. 딱 맞게 내려와야지. 어른들이 잘 알아요. (인터뷰 2020.05.06)

이러한 민중의 주체성은 단순히 큰 목소리를 가지고 의례를 주도한다는 점을 넘어서서, 의례를 해석학적으로 전유하는 적극적인 민중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산멕이의 참여자들은 종교혼합의 역사적 맥락에서 검토했듯이 과거 대법스님의 영향으로 안정사의 신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불자인 동시에 산멕이를 유지해나가는 자신들을 균열적 존재라던가, 이중적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이해하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이 산멕이를 해 온 역사와 새롭게 마주하게 된 불자로의 정체성을 자신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통합시킨다.

> 면담자: 불자 입장에서 보시기엔 산멕이를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 A: (안정사와 산멕이의 양 공동체가) 거의 뭐 공동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분리되는 게 아니라. 오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따로 분리하고 이런 적은 없어요. (인터뷰: 2020.05.06)

또한, 산멕이의 참여자들은 의례의 성공 또한 외부적인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체적인 사고 속에서 해석해낸다.

> 다여스님: (산멕이 하는 사람들은) 신기하고 특별한 거 바라지 말고 집에 모셔 놓은 신 모셔와서 놀러 갑시다 하고 왔으니까 무속인들이 이렇게 하고 잘 받았나 못 받았나, 이런 건 내 기분에 달린 건데. 맘에 달린 거니까. 다 즐겁게 화목했으니까. 인간이 화목하면 신도 화목한 거 아니야? 중생이 행복하면 부처가 행복하고. 산멕이 하는 사람들이 신나고 즐거우면 신도 같은 거야. 무속인이 신난다고 우리가 신난 게 아니니까. 여긴 우리가 즐거워야 해. (인터뷰: 2020.05.06)

이처럼 산멕이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적극적으로 의례를 만들어나가고 의례를 해석해낸다. 결과적으로 민중들의 적극적인 구성적 과정은 종교혼합의 유형과 역사를 만들어낸다. 그렇기에 상두산 산멕이라는 사례를 분석하는 데 있어 종교혼합의 유형론, 역사성 그리고 수용자 등의 세 측면을 자의적이고 분절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요점이라고 할 수 있다.

Ⅴ. 나가며

삼척 상두산 산멕이는 현재 몇 남지 않은 산멕이의 하나로 더 많은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다. 본고는 인터뷰와 답사를 통해 삼척 상두산 산멕이의 실재를 기초적인 수준에서 파악하고, 종교혼합의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실재의 차원에서 산멕이의 목적은 조상과 함께하는 화전놀이며, 의례에서 모셔지는 신격인 문수, 조상, 산, 군웅 등은 산에 좌정한 신과 가정에서 산으로 모셔지는 신이라는 두 개의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특히 본고는 가정에서 산으로 모셔지는 조상신의 범주를 3~4대조 조상과 광의의 조상신으로 구분하여, 기존 연구에서 산(山)으로 파악되던 산이 범(표범)으로 표상되는 광의의 조상신이라고 파악했고 일반적으로 소의 삼신으로 이해되는 군웅 또한 광의의 조상으로 보았다.

또한, 본고는 종교혼합의 시각에서 상두산 산멕이를 이해했다. 유형론, 역사성, 수용자의 측면에서 혼합의 과정과 혼합을 추동한 인간의 에너지를 포착했다. 종교혼합이 특정 종교 제도 혹은 특정 인물의 의도에 따라 편집된 것이 아니라는 지점에서 우리는 민속 주체에 내재된 역동성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추후 상두산 산멕이에 접근하면서 민중의 주체성을 유의미한 해석의 기준으로 접근하는 시각이 요청된다.

인간은 언제 어디에서든 종교를 통해 삶 자체의 물음에 답을 찾는 종교적 존재, 곧 종교적 인간(*homo religiosus*)이다.[31] 앞선 논의들 속에서 상두산 산멕이를 행하는 민중들은 종교적 인간으로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들은 실존적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산멕이라는 종교문화를 만들었고, 그들은 산멕이를 주체적으로 형성, 구성, 혼합해 나가며 유지해 왔다. 이러한 산멕이는 최근 그 명맥을 유지하고자 안정사와 상호작용을 하며 의례의 지속을 고민하고 있다. 향후 귀추가 계속해서 주목되길 바란다.

주제어: 산멕이, 상두산, 종교혼합, 조상, 산, 군웅

31) 정진홍, 『한국 종교문화의 전개』, (서울: 집문당, 1986), 13-14.

투 고 일: 2020. 10. 27.
심사종료일: 2020. 11. 11.
게재확정일: 2020. 11. 25.

<참고문헌>

국립문화재연구소.『한국의 가정신앙 - 강원도편』.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김경남.「영동지역 "산멕이"연구」.『임영문화』16 (1992): 118-125.

김도현.「삼척 상두산 산멕이에서 모시는 신령의 성격과 의미」,『한국무속학』41 (2020): 67-122.

김진순, 송화섭.「강원도 민속의 지역적 정체성」.『비교민속학』29 (2005): 195-241.

김창현.「고려말 불교의 경향과 문수신앙의 대두」.『한국사상사학』23 (2004): 281-320.

김태수.「산멕이에 관한 논쟁적 해석」.『한국민속학』43 (2006): 149-203.

방원일.「혼합현상을 이론화하기 - 한국 개신교 의례의 정착과정을 중심으로-」.『종교학연구』20 (2001): 107-131.

_____.「혼합현상에 관한 이론적 고찰: 종교문화의 만남을 서술하기 위하여」,『종교문화비평』33 (2018): 55-89.

엘리아데, 미르치아(Mircea Eliade).『종교형태론(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이은봉 옮김. 파주: 한길사, 1996.

장정룡.「강원지역 산맥이 신앙 고찰」.『한국민속학』25 (1993): 301-321.

장정태.「한국불교와 민간신앙의 혼합현상」.『한국불교학』75 (2015): 253-285.

정진홍.『한국 종교문화의 전개』. 서울: 집문당, 1986.

_____.『종교문화의 이해』. 서울: 청년사, 1995.

최종성. "[Book Reviews] Syncretism of Buddhism and Shamanism in Korea."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 8 No. 1 (2005): 217-222.

_____.「조선전기 종교혼합과 혼합주의 - 유교, 불교, 무속을 중심으로」.『종교연구』47 (2007): 37-81.

Baird, Robert D. Category Formation and the History of Religions. The Hague: Mouton, 1971.

Grayson, James H. "The accommodation of Korean folk religion to the religious

forms of Buddhism: an example of reverse syncretism." Asian Folklore Studies Vol. 51 No. 2 (1992): 199-217.

Leeuw, G. Van der. Religion in Essence and Manifestation. trans. J. E. Turner .New York: Harper & Row, 1963.

Shaw, Rosalind and Charles Stewart. Syncretism/Anti-Syncretism: The Politics of Religious Synthesis. London: Routledge, 1994.

Palmisano, Stefania and Nicola Pannofino. Invention of Tradition and Syncretism in Contemporary Religions.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7.

<Abstract>

The Reality of Mt. Sangdu Sanmegi:

From the Viewpoint of Religious Syncretism

Kim, Jae Woo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In Woo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reality of Sanmegi, a spring rite in which people honor the deities on Mt. Sangdu, based on interviews and participant observation. In particular, it analyzes the form and practice of Sanmegi by using the concept of syncretism. Despite its negative connotation of harming the supposed purity of a religion, this paper tries to break away from this negative perception by understanding syncretism as something naturally occurring in religious phenomena.

Sanmegi is a religious folk rite in which family deities, broadly considered to be ancestors, are enshrined in the spring and prayed for while doing Hwajeon nori (communal gatherings in the spring time, where pancakes or cakes are decorated with petals). In addition to the close ancestors of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 gods broadly considered to be ancestors include San and Gunung.

Sanmegi can be understood from a typological perspective by comparing the "Models of Syncretism:" A "historical approach" on the one hand, which takes account of change over time; and an "agent approach" on the other, taking the perspective of "agents," especially religious devotees who cause syncretism. In terms of typology, high syncretism is prominent, and gradual syncretism and intentional syncretism are simultaneously observed. Additionally, according to this paper's newly suggested classification, a positive-cognitive syncretism is observed. The historical

process is divided into three periods showing the progress of the diverse syncretic processes. Lastly, from the agent's perspective, the hermeneutic appropriation of the people who lead the syncretism is remarkable.

In conclusion, we tried to clarify the purpose and deity of Sanmegi, which has not been well studied in the past, and tried to theorize it from the perspective of religious syncretism. We look forward to more future case studies and elaboration of syncretism.

Key words: Sanmegi, Mt. Sangdu, syncretism, ancestor, San, Gunwoong